

“다주택자 꼼짝마” 임대주택정보 한눈에… 세제혜택도 축소

〈이달 중 가동〉

김현미 장관 “세제혜택 과한 듯 대출규제 회피 수단으로 활용돼 임대소득 등 부동산 감시 강화”



지난달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 회의실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을 가동해 부동산 감시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다주택자를 정조준해 투기 세력을 잡겠다는 의도다.

김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세금감면 혜택을 받아) 집을 사야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세제 혜택이 과한 것 같아 조금 줄여야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이후 다주택자를 겨냥한 규제 중심의 정책을 쏟아냈다. 올해 4월엔 양도소득세 중과를 시행하고, 이에 앞서 다주택자가 출구전

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감면 등을 확대했다. 그러나 최근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카페에 가면 혜택이 많으니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다”며 “처음

정책을 설계했을 때 의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우선적으로 서울 등 일부 과외지역에서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 등록을 대출규제 회피 수단으로 활용해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에 대해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이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임대소득 등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9월부터 ‘임대주택 정보시스템’이 가동되면 임대주택 등록 여부를 떠나서 누가 몇 채의 집을 갖고 전세를 주고 월세를 주는 지 다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며 “이 시스템으로 겹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매하는 투자)도 파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국토부가 실시간 실거래 현황과 한국감정원에서 제공하는 지역별 월세가액으로 임대소득 추정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또 이 시스템을 통해 파악된

임대소득 추정 자료를 향후 세금 추징과 세무조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제청에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앞으로 서울 집값의 방향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는 생각보다 세지 않았다”며 “하지만 투기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대출규제에다 공급대책 발표, 공시 가격 현실화 등을 하면 많이 잡힐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수도권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 기준 수도권 공공택지 확보 물량은 48만호, 신혼희망타운은 6만2000호의 택지가 지정됐다”며 “물량면에서는 오는 2022년까지 충분하지만 그럼에도 우려가 있어 이번에 300만호를 추가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신규 공급 물량에 대해 “추석 전 일부를 공개하겠다”며 “교통 편의성이 높는데 위주로 입지를 정하겠다”고 했다.

/채신화기자 csh9101@metroseoul.co.kr

아시아나, 올해 차입금 8600억 감축 여전한 문송… “이공계 원해요” 9%p ↑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재무구조 개선 작업 순항 자산매각 등으로 현금 확보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8000억원 이상의 차입금을 감축하는 등 재무구조 개선 계획이 순항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말 4조570억원에 달하던 회사 차입금을 지난달까지 8656억 감축한 3조1914억원으로 줄였다. 지난 7월 말(3조3319억원)과 비교해도 차입금이 1406억원 더 줄었다.

차입금 축소는 영업활동에 따른 현금 유입(5122억)과 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을 통한 현금 확보(5634억) 등으로 가능했다.

이로 인해 아시아나항공의 단기 차입금 비중은 50%에서 30% 수준으로 20% 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올해 차입금 감축 목표를 조기에 달성한 것이라고 아시아나 측은 밝혔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전체로도 작년 말 5조779억원이던 총 차입금이 지난달 3조

9711억원으로 줄었다. 올해 8월까지 1조1068억원을 감축한 것이다.

그룹도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유입 7267억원, 자산매각 등 구조조정을 통한 현금유입 7794억원 등으로 총 1조561억원의 자금을 확보해 차입금 상환 재원으로 활용했다.

아시아나는 앞으로도 자회사 기업공개, 영구채(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으로 차입금을 올해 말까지 3조원 미만으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룹 전체 차입금은 3조7000억원 미만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흐름만으로 상환·조달이 가능한 재무구조의 선순환 기반을 마련하고 신용등급을 상향해 더욱 원활하게 자금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는 현재 'BBB-'에 머물러 있는 신용등급을 3분기 실적에 바탕으로 'BBB'나 'BBB+'로 한 등급 이상 상향을 추진한다. /양성호 기자 ys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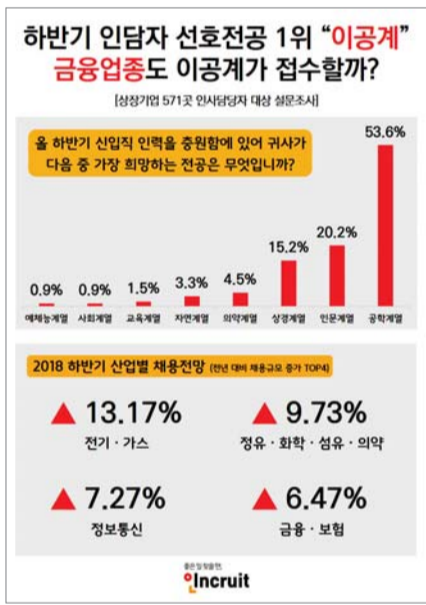
인크루트, 2018 채용 트렌드 조사 기업 54% 엔지니어 채용 희망

올해 하반기 신입 채용시장에서도 '문송(문과라서 죄송합니다)'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신입총원 시 인사담당자들이 희망하는 지원자의 전공으로 이공계열이 압도적인 1위로 나타났다.

2일 인크루트가 상장사 571곳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2018 채용 트렌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3.6%가 공학계열 전공자 채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공계열에 이어 인문계열(20.2%), 상경계열(15.2%)로 선호계열 톱3가 전체의 89%를 차지했고, 기타 전공은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았다. 기타 전공으로는 의약계열(4.5%), 자연계열(3.3%), 교육계열(1.5%) 순이었고, 선호도가 가장 낮은 전공은 사회계열(0.9%), 예체능계열(0.9%)이 꼽혔다.

특히 공학계열 선호도는 전년보다 높아져 채용 시장에서 이공계 선호 현상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인크루트가 2017년 실시한 같은 조사에서도 인사담당자들의 선호 전공 1위는 공학계(45%)였고, 올해는 이에 비해 선호도가 8.6%p 높아졌다. 이공계열 선호현상은 대학 입시에서도 '전학기' (취업에 강한 전기전자, 화학공학, 기계공학 전공) 학과들의 경쟁률

상승에서 나타나고 있고, '인구론'(인문계 졸업생 90%는 논다) 등이 나올 정도로 공공연한 현상이 됐다.

이공계 선호현상은 달라지는 산업생태계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일찍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필두로 한 전기·전자, 신재생 에너지 미래 먹거리로 바라보고 기술과 인력개발 부문의 지속 투자를 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4차산업혁명 흐름과 맞물려 앞으로도 인력수요가 상당할 전망이다. 실제로 하반기 1만 명 가량의 채용을 앞둔 삼성그룹은 전자와 전기·SDI 신사업에서, LG는 AI와 로봇사업 인력 채용을 늘릴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금융 분야 이공계 선호도 또한 높아질 전망이다. 인크루트의 2018 하반기 산업별 채용전망에 따르면, 금융·보험업종은 전년 대비 6.47%p 만큼 채용계획이 증가한다. 이는 최근 일반 은행원 채용뿐 아니라 디지털 금융, 보안, AI 관련 전문 분야 채용이 강화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용수 기자 hys@

미래에셋, 증권사 첫 해외 공모채 발행도

〉1면 '자본확충, 보험사는...'서 계속

미래에셋대우는 국내 증권사 최초로 해외 공모회사채 발행에 나선다. 연내 3억달러(약 3400억원) 규모다. 대표주관사로써 씨티글로벌마켓증권, BNP파리바, HSBC가 참여했고 다이와증권, 미래에셋대우 홍콩법인이 공동주관업무를 맡고 있다. 미국을 제외한 기관투자자가 참여하는 '유로달러 발행 방식(Reg.S)'으로 만기는 5년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대우는 최근 국내의 투자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올해 네이버와 제휴를 기반으로 그룹에 1억5000만달러(약 1600억원)를 투자한 것을 비롯해 홍콩 더센터 빌딩 인수금융(3200억원) 중국 1위 차량공유 서비스업체 디디추싱 지분 투자(2500억원) 등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

신용도가 높은 시중은행들은 해외사 자금을 조달한다.

신한은행은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3억 달러(3354억6000만원) 규모 해외기명식 무보증무담보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후순위채)을 발행할 계획이다. 발행지역은 미국, 호주, 아시아, 유럽 등이다.

IBK기업은행은 지난달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외화 조건부 신종자본증권 3억달러를 발행했다. 이번 발행으로 기업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총자본 비율이 약 0.22%포인트 개선될 전망이다. 발행금리는 3.9%(미국채 5년+208.5bp)로 올해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발행한 미달러와 신종자본증권 중 최저금리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외화 코코본드(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이 벤치마크로 작용해 향후 국내 은행의 코코본드 발행금리가 대폭 하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문호 기자 kmh@

휘발유값 또 연중 최고치... 9주 연속 ↑

8월 다섯째주 휘발유값 1620.3원 최고가 지역 서울 평균 1707.4원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이 9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8월 다섯째주 전국 주요소에서 판매된 보통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1당 평균 0.9원 오른 1620.3원으로 조사됐다. 지난 6월 넷째주부터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2014년 12월 셋째주(1656.0원) 이후 가장 비싼 가격이다. 올해 1월 첫째주(1544.9원)와 비교하면 4.9%나 올랐다.

자동차용 경유도 전주보다 0.9원 오른 1421.1원으로, 12월 넷째 주(1431.3원) 이후 최고치다. 실내 등유는 948.3원으로 0.9원 상승했다.

상표별로 살펴보면 알뜰주유소의 휘발



서울 한 주유소에서 고객들이 차에 주유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 가격은 1596.8원으로 전주보다 0.5원 올랐다. 가장 비싼 SK에너지는 1.2원 상승한 1637.2원이었다. 이어 GS칼텍스가

1621.7원, S-OIL이 1614.3원, 현대오일뱅크가 1612.1원으로 각각 뒤를 이었다.

지역별 살펴보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휘발유 가격은 평균 1.4원 오른 1707.4원이었다. 대구는 0.9원 오른 1594.6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가격에 판매됐다.

같은 기간 주요 정유사의 휘발유 공급 가격은 전주보다 1당 0.4원 오른 1543.4원으로 집계됐다. 경유와 등유도 각각 1.3원과 1.2원 상승한 1352.3원과 839.1원에 공급됐다.

한국석유공사는 “국제유가는 미중 무역분쟁 심화 우려 등에 따른 하락 요인과 미국 원유 및 휘발유 재고 감소,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 등의 상승 요인이 혼재했다”며 “국내 제품가격은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의 경우 8월 넷째 주 가격이 배럴당 평균 74.9원으로 전주보다 2.6달러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유진 기자 ujin6326@